통계연구(2023), 제28권 제2호, 45-70/ DOI https://doi.org/10.22886/jkos.2023.28.2.45

성역할 관련 연구동향과 여론 변화 분석: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엄연용[1] . 김경인[2] . 송원영[3]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한 성역할과 젠더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성역할 관련 연구들과 뉴스를 통한 여론을 살펴보고 정책 시행시기를 중심으로 성역할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성역할 논문 789편을 수집하였고 네이버 뉴스에서 “성역할”을 정확히 포함한 8,049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Google Colab를 이용해 텍스트마이닝 분석방법 중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이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되었고 관념, 사회, 역할, 차별, 평등이 여론의 핵심 키워드였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성역할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은 주요 정책과 맞물려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 결과 시기별로 시대적 주요 이슈를 점검할 수 있었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성역할, 연구 동향, 뉴스 기사, 토픽 모형화, 의미망 분석

1. 서론

가부장제는 사회체계로 고정된 성역할의 프레임을 구축하였고 전통적인 성역할은 가족 중심 집단주의 안에서 답습되어 개인의 성역할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가족을 근간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유교적 규범과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 성역할에서 남성은 가부장적 존재로 권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여성은 신분 차별과 억압으로 주체적 행위자로서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역할의 차이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성역할에 대해 오랫동안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왔다(2005, 통계청).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전 조사(2016)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지만, 실제 현장 관행이나 조직문화 등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 여성가족부). 이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일상에서 잘

1) 1저자.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겸임교수, E-mail: eyy83@hanmail.net
2) 2저자.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E-mail: kgiyms@naver.com
3) 교신저자.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E-mail: song@konyang.ac.kr

실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구분된 성역할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가족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성역할의 변화는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다소 지체된 양상을 보인다(황동진 외, 2020).

한국 사회는 1990년부터 근대국가로의 발전과 법과 정책의 맥락 안에서 성역할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여성을 위한 모자보건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가족계획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개정 과정에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비중을 증가하였다. 이후 1995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발판으로 성평등과 전통적인 성역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명재진, 2021). 이는 가족 문제를 개인과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상호 존중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실행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화하며 미디어 등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고, 성적으로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개선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역할은 가부장제의 위계적 권력이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 발전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은 역차별과 젠더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종합하면 성역할의 변화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비롯해 수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얽혀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한국의 성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성역할에 대한 개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범위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역할 변화에 대한 시기 준거를 설정하기에는 기준이 되는 시기가 부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성역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성역할의 정의와 배경

성역할(gender-role)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 범주 내에서 남자 혹은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성격, 행동, 태도, 경향, 기대를 포함한다(손영숙, 1994).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여러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성별에 따른 성역할이다. 성역할은 인간의 생물학적 소인이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변명숙, 2010), 개인이 속한 심리·사회적 환경에 따라 기대되어 배우고 형성하게 되는 행동양식도 포함한다. 전통적인 성역할에서는 주로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구분했는데, 이러한 성별의 역할 차이는 현실적으로 의무와 권리 차이를 만들었고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양명숙, 1996). 특히 한국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가족문화는 지배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성역할 불균형을 강조했으며 나아가 가족,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안선영, 1994; 이선미, 김경신, 1996). 그러나 이천년대에 들어서부터 전통적인 성역할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권리의식을 중점으로 사회적 참여와 차별적 요인들을 조망하면서 남녀 모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가 시도되었다(우은복, 2002).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법률 제정을 발판으로 빠르게 변화하였고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어 교육장면에서도 이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장영애, 김용미, 2010). 양성평등은 상황에 따라서 남성적 특성 및 여성적 특성의 역할을 융통성 있게 잘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은숙, 조병은, 2010).

2.2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자연어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로 텍스트를 정량화하여 임베딩(embedding)하고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모델에 적용 및 통계적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마이닝의 목적은 전통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의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고 정보를 산출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최근에는 SNS,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텍스트로부터 사회적 흐름과 잠재된 의미를 도출하고 현상에 대한 암묵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유형으로는 키워드분석(keyword analysis),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이 주로 사용된다.

키워드분석은 자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주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 하에 빈도를 분석하고 핵심어를 추출하여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과 패턴을 분석한다. 이는 핵심어를 통해 자료를 함축하여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추정하고,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통해 빈도를 시각화함으로써 정보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의미연결망 분석은 문서로부터 추출한 단어 간의 관계를 연결망 구조로 표현하고 계량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단어는 노드(node)라고 하며 노드들의 연결 관계는 링크(link)를 통해 나타낸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동시 출현(co-occurrence) 어휘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며 상호관계성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행렬을 그래프로 시각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구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 노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화한 중심성지수(centrality)를 통해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 지표와 연결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특정 키워드의 중심 위치를 보여주며 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의 영향이 크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통해서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키워드를 연결해주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은 자료에서 주제를 탐색하는 통계 방법으로 빠르게 빅데이터의 자료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lei(2012)가 제안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은 여러 주제가 혼재해 있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활용도가 높다. LDA는 전체 데이터에서 관찰 가능한 키워드를 파악하고 분포를 통해 토픽별 단어 분포가 할당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토픽의 수와 주제어를 선별하여 관측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픽을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분석, 토픽모델링은 텍스트의 잠재적인 의미구조와 맥락을 살펴볼 수 있어 최근 사회적 이슈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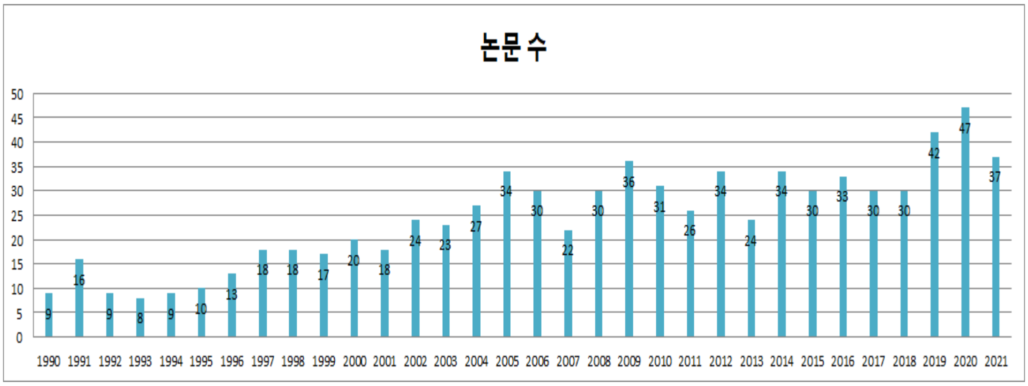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앞서 개관한 성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텍스트 마이닝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성역할 관련 연구 동향과 뉴스 기사를 통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비교적 긴 기간의 변화 과정에서 정책 개입이 성역할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0년 모자보건법시행시점에서부터 2004년까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점에서부터 2014년까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점에서 2021년까지의 세 집단으로 자료를 분리하여 한국의 성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대 및 정책 개입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역할 관련 연구 동향 및 여론 변화 분석은 불평등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등 사회문제의 근거 기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성역할 관련 연구에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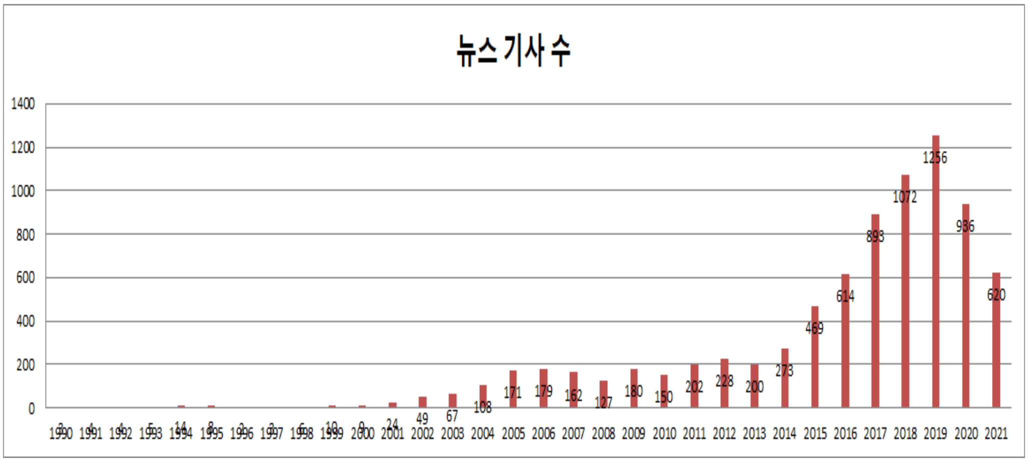
성역할 연구 동향과 여론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의 충분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검색사이트 RISS에 접속하여 아동학, 발달학, 보육학, 가족학, 가정학, 교육학, 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상담학 등 성역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21

년까지 “성역할”을 검색어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후 질적연구 및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789편의 성역할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 뉴스 채널에서 성역할 단어를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python을 활용하여 크롤링하였고 1990년에서 2021년까지 총 8,049개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림 3.1>, <그림 3.2>와 같다.



→ 모자보건법시행시점, → 건강가정기본법시행시점, → 양성평등기본법시행시점

<그림 3.1> 성역할 관련 연간 논문 편수(1990년~2021년)



→ 모자보건법시행시점, → 건강가정기본법시행시점, → 양성평등기본법시행시점

<그림 3.2> 성역할 관련 연간 뉴스 기사 수(1990년~2021년)

3.2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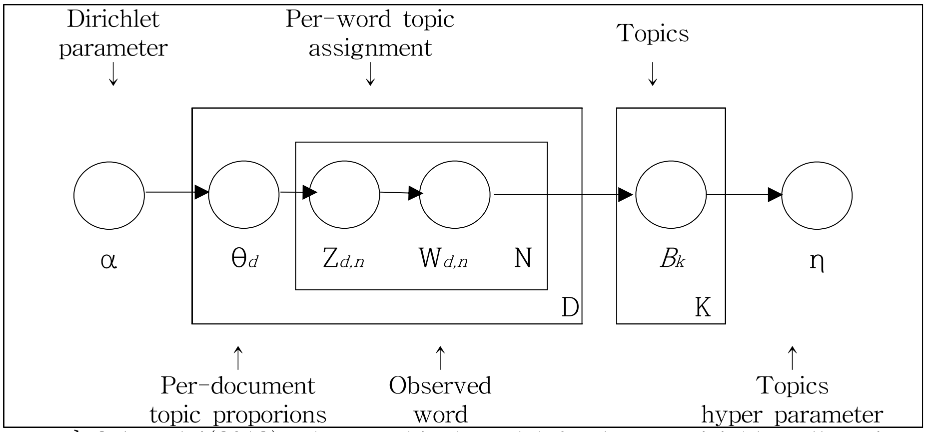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성역할 관련 연구 동향 및 여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Google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개발한 Colaboratory(Colab)를 활용하였다. Colab는 Google 드라이브, 클라우드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python 작성 및 실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으로

Tensor Flow, Keras, Mataplotlib, Scikit-Learn, Pandas 등 데이터에 분석에 사용되는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창욱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어 자연어처리 Konlpy와 형태소 분석기 MeCab를 사용하였다(이기창, 2021). 일반적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데이터 전처리는 텍스트를 정제하는 과정으로 유사어를 처리하기 위해 비슷한 단어는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로 통합하였고(예: 성역할정체성은 성역할정체감, 일가정 갈등, 일가족양립은 일가정양립), 기본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복합명사, 신조어를 사용자 사전에 지정하였으며(예: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특성, 결혼 만족도, 일가정양립),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였다. 정규화(normalization) 및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는 총 논문 1,284개, 뉴스 14,810개이었다.

데이터수집 →	데이터전처리 →	데이터분석 →	시각화 →	해석
데이터베이스/웹 데이터	불용어 유사어정제 사용자정의 정규화/토큰화	통계적분석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차트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그래프	결과분석 관계성분석 해석

<그림 3.3> 텍스트 마이닝 분석단계

데이터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기간에 따른 성역할 논문의 학술지 게재 빈도, 연구 대상의 구성, 연구 대상의 연령에 대하여 평균, 빈도 산출하였다. 둘째, 키워드분석은 단어 빈도수(frequency)를 측정하기 위해 Collections 라이브러리의 Counter 함수를 사용하였고 WordClou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다만, 하위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자료 수집의 중심 키워드인 성역할은 키워드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의미연결망 분석은 CountVectorizer와 Itertools, Network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어휘 동시 출현 빈도(co-occurrence)를 계수화하고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산출하였으며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성역할의 연구 동향과 여론 변화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은 Gensim과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oherence Score와 토픽에 따른 시각화를 하였다. 최적의 토픽 수(k)를 결정하기 위해 1개부터 5개 토픽 수를 기준으로 할당하고 시뮬레이션하였으며 Deveaud(2014)가 제안한 토픽이 서로 구분될수록 적합하다는 것과 CaoJuan(2009)의 지수가 작을수록 LDA모형의 k 값이 적절하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 토픽 수를 도출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의 알고리즘은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Blei(2012) The graphical model for latent Dirichlet allocation

4. 연구결과

4.1 성역할 논문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역할 연구의 발표된 빈도를 모자보건법 시행시기 1990년~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 2005년~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 2015년~2021년으로 구분하여 발표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인 1990년~2004년은 국내 성역할 연구의 초반부로 연구기간은 가장 길지만, 연구 수는 239편으로 가장 적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인 2005년~2014년에는 301편으로 연구 수가 가장 많았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인 2015년~2021년에도 가장 짧은 기간임에도 249편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도별 성역할 논문의 학술지 게재 빈도

발표연도	학술지						계
	아동,발달,보육(a)	여성,가정,가족(b)	과학,교육(c)	사회,복지(d)	심리,상담(e)	기타(f)	
1990~2004	23(9.6)	63(26.4)	52(21.8)	23(9.6)	19(7.9)	59(24.7)	239(30.3)
2005~2014	40(13.3)	50(16.6)	54(17.9)	36(12.0)	28(9.3)	93(30.0)	301(38.1)
2015~2021	23(9.2)	46(18.5)	22(13.3)	52(20.9)	26(10.4)	69(27.7)	249(31.6)
계	86(10.9)	159(20.2)	139(17.6)	111(14.1)	73(9.3)	221(28.0)	789(100)

a. 한국아동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청소년학연구, 한국보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육아지원연구, 아동학회, 한국청소년연구, 아동교육
b. 대한가정학회, 열린부모교육연구, 한국여성학, 부모자녀건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여성문학연구, 가족과문화, 아시아여성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여성연구, 한국노년학, 한국가정과학회, 노년교육연구, 생활문화연구
c. 교육사회학, 인문과학연구, 교육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한국생활과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생활과학, 사회과교육, 미래교육연구, 교육과실천, 한국학교보건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인간이해, 한국교육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d. 사회복지연구, 보건사회연구, 한국사회학, 한국인구학, 사회과학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e. 한국심리학회, 청소년상담연구, 상담평가연구, 상담학연구, 한국예술심리치료학
f. 대한보건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응급구조학회

<표 4.2> 연구대상 구성

발표년도	남성	여성	부모(부부)	자녀	부모+자녀	성인	기타(혼합)	계
1990~2004	10(4.2)	54(22.6)	12(5.0)	67(28.0)	11(4.6)	55(23.0)	30(12.6)	239(30.3)
2005~2014	34(11.3)	37(12.3)	11(3.7)	75(24.9)	12(4.0)	91(30.2)	41(13.6)	301(38.1)
2015~2021	32(12.9)	64(25.7)	21(8.4)	23(9.2)	12(4.8)	68(27.3)	29(11.6)	249(31.6)
계	76(9.6)	155(19.6)	44(5.6)	165(20.9)	35(4.4)	214(27.1)	100(12.7)	789(100)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에는 남성(4.2%)보다 여성(22.6%)이, 부모(5.0%)보다 자녀(28.0%)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에도 부모(3.7%)보다 자녀(24.9%)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으나 남성(11.3%)과 여성(12.3%)의 비율이 비슷해졌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에는 남성(12.9%)보다 여성(25.7%)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자녀(9.2%)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3> 연구대상 연령

발표년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인	기타(혼합)	계
1990~2004	17(7.1)	19(7.9)	28(11.7)	46(19.2)	81(33.9)	4(1.7)	44(18.4)	239(30.3)
2005~2014	6(2.0)	15(5.0)	52(17.3)	70(23.3)	98(32.6)	5(1.7)	55(18.3)	301(38.1)
2015~2021	6(2.4)	3(1.2)	14(5.6)	44(17.7)	134(53.8)	6(2.4)	42(16.9)	249(31.6)
계	29(3.7)	37(4.7)	94(11.9)	160(20.3)	313(39.7)	15(1.9)	141(17.9)	789(100)

연구 대상의 연령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보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에서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감소하였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에는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감소하였고 성인(53.8%)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4.2 키워드분석(keyword analysis)

성역할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 키워드들은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등이었고 뉴스의 주요 키워드들은 '성별차이', '사회', '평등', '성역할고정관념', '전통' 등이었다. 정책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논문 키워드는 '사회', '관계', '교육', 한국'이었으며 빈도는 낮으나 '아내 구타'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도 영향 안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뉴스를 통한 여론을 살펴보면, 뉴스 키워드들은 '성별 차이', '사회', '평등' 으로 성역할에 있어 사회적 차이가 존재했던 한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모자보건법 시행시기(1990~2004년) 키워드 빈도 순위

순위	논문(386)	뉴스(1791)
1	성역할정체감(70)	성별차이(134)
2	성역할태도(45)	사회(115)
3	성역할고정관념(27)	평등(98)
4	사회(17)	역할(65)
5	관계(16)	성역할고정관념(63)
6	교육(15)	가정(60)
7	한국(13)	성교육(54)
8	부부(11)	차이(52)
9	행동(10)	전통(40)
10	부모(10)	의식(39)
11	발달(10)	변화(35)
12	갈등(10)	문제(30)
13	성역할특성(10)	한국(28)
14	취업(9)	구분(27)
15	결혼만족도(9)	편견(24)

주: 성역할의 검색결과로 키워드 분석에서는 ‘성역할’ 키워드를 제외함.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시기는 <표 4.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논문 키워드는 ‘양성평등’, ‘가치관’, ‘갈등’, ‘우울’ 등이었다. 여성의 발전을 통해 성평등을 지향하고자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니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개입은 오히려 불평등 체감과 사회적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인식 및 불편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의 주요 키워드들은 ‘일 가정 양립’, ‘가정’, 키워드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 제정과 추진 및 시행과 맞물려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5>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2005~2014년) 키워드 빈도 순위

순위	논문(467)	뉴스(4958)
1	성역할정체감(112)	평등(715)
2	성역할태도(56)	일가정양립(643)
3	성역할고정관념(48)	사회(506)
4	갈등(30)	양성(500)
5	진로(27)	성역할고정관념(439)
6	자아존중감(24)	가정(414)
7	인식(22)	의식(405)
8	사회(20)	역할(334)
9	부모(19)	전통(268)
10	양성평등(17)	변화(219)
11	성별(16)	차별(194)
12	부부(16)	문제(180)
13	교육(15)	성교육(170)
14	가치관(15)	인식(148)
15	우울(15)	데이트폭력(145)

주: 성역할의 검색결과로 키워드 분석에서는 ‘성역할’ 키워드를 제외함.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의 논문 키워드에서 새로 등장한 '일가정양립'과 '관계', '경험', '가족', '결혼'의 키워드를 통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성역할이 가족과 연관되어 연구되는 흐름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뉴스의 주요 키워드들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에는 '갈등', '젠더', '데이트폭력'의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추진의 흐름 안에서 성역할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고정관념' 키워드의 급격한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과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적 시도와는 달리 정책에 따른 대중적, 사회적 관심사는 사회 체계적인 기존의 가치들과 변화하는 개인과 대립 및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4.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2015~2021년) 키워드 빈도 순위

순위	논문(431)	뉴스(8061)
1	성역할태도(64)	성역할고정관념(2472)
2	인식(47)	평등(1879)
3	갈등(45)	사회(1491)
4	성역할고정관념(41)	역할(1112)
5	성역할정체감(34)	차별(1035)
6	부부(28)	젠더갈등(993)
7	만족(23)	갈등(974)
8	부모(22)	가족(833)
9	우울(19)	전통(633)
10	일가정양립(18)	데이트폭력(630)
11	관계(17)	성교육(604)
12	경험(17)	성별차이(557)
13	가족(16)	문화(555)
14	결혼(15)	양성(527)
15	맞벌이(14)	가정(502)

주: 성역할의 검색결과로 키워드 분석에서는 '성역할' 키워드를 제외함.

년도	논문(words=50)	뉴스(words=50)

1990년~2004년

2005년~2014년

2015년~2021년

<그림 4.1> 워드클라우드

4.3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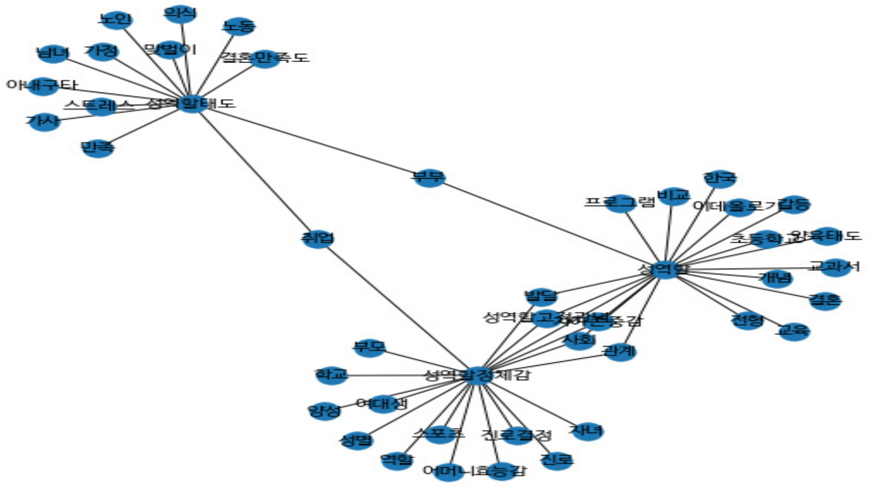
주제어의 중심성 분석은 성역할과 관련하여 어떤 키워드가 중심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중심성을 통해 성역할과 가장 많이 연결되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가장 근접해 있는 키워드, 다른 키워드와 연결해주는 역할이 큰 매개적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시행 시기별로 성역할 연구 및 뉴스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7~4.9>와 같다. 첫째,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결과는 <표 4.7>과 같다.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성역할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취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육태도, 이데올로기, 교육, 갈등, 결혼 등 키워드들이 있었다. 성역할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사회, 관계 노드들이 연결됨과 동시에 성역할정체감과도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성역할정체감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 진로, 학교, 성별 등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는 결혼만족도, 아내구타, 가사, 가정, 맞벌이, 스트레스, 노인 등 노드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한국의 성역할태도가 성별에 따라 분명한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였고 성차별과 성불평등은 주로 여성에게 향했던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

<표 4.7> 모자보건법 시행시기(1990년~2004년) 주제어 중심성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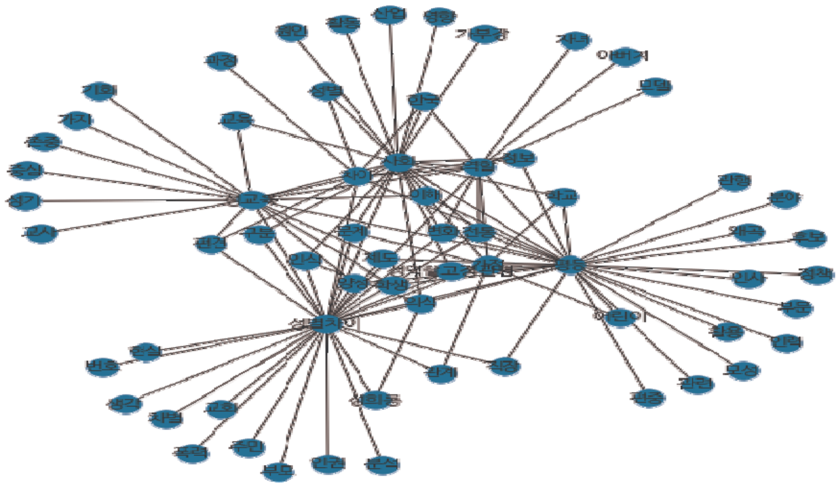
구분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논문	1	성역할정체감	0.562	성역할정체감	0.561	성역할정체감	0.823
	2	성역할태도	0.375	취업	0.500	성역할태도	0.576
	3	성역할고정관념	0.156	성역할태도	0.438	취업	0.483
	4	취업	0.062	성역할고정관념	0.390	성역할고정관념	0.123
	5	관계	0.062	관계	0.376	맞벌이	0
	6	사회	0.062	사회	0.376	자녀	0
	7	맞벌이	0.031	자녀	0.363	부모	0
	8	자녀	0.031	부모	0.363	역할	0
	9	부모	0.031	역할	0.363	학교	0
	10	역할	0.031	학교	0.363	만족	0
뉴스	1	평등	0.468	평등	0.653	평등	0.421
	2	성별차이	0.453	성별차이	0.646	성별차이	0.386
	3	사회	0.359	사회	0.609	사회	0.237
	4	성교육	0.265	성교육	0.576	성교육	0.216
	5	역할	0.187	역할	0.551	역할	0.103
	6	차이	0.156	차이	0.542	차이	0.058
	7	가정	0.141	가정	0.507	가정	0.022
	8	의식	0.078	전통	0.489	의식	0.008
	9	성역할고정관념	0.063	변화	0.488	성역할고정관념	0
	10	전통	0.062	의식	0.481	인식	0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 차이, 평등, 사회, 성교육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편견, 한국, 역할, 차이, 가정, 의식들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실, 차별, 폭력, 성희롱, 인권 등 키워드들이 있었다. 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왜곡, 인사, 관행, 편중 노드들이 연결되어 나타났다. 사회를 중심으로 가부장, 한국, 성별, 억압, 차이, 원이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성교육을 중심으로 존중, 기회, 중심, 편견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논문



뉴스



<그림 4.2> 모자보건법 시행시기(1990년~2004년) 네트워크와 중심성 그래프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결과는 <표 4.8>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성역할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태도, 성역할정체감, 갈등, 성역할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및 성역할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역할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차별, 성폭력, 교육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성별, 진로, 양성의 키워드들은 성역할정체감과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부부, 가족, 결혼, 변화, 결혼만족도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사회, 부모, 자아존중감의 키워드들은 성역할정체감과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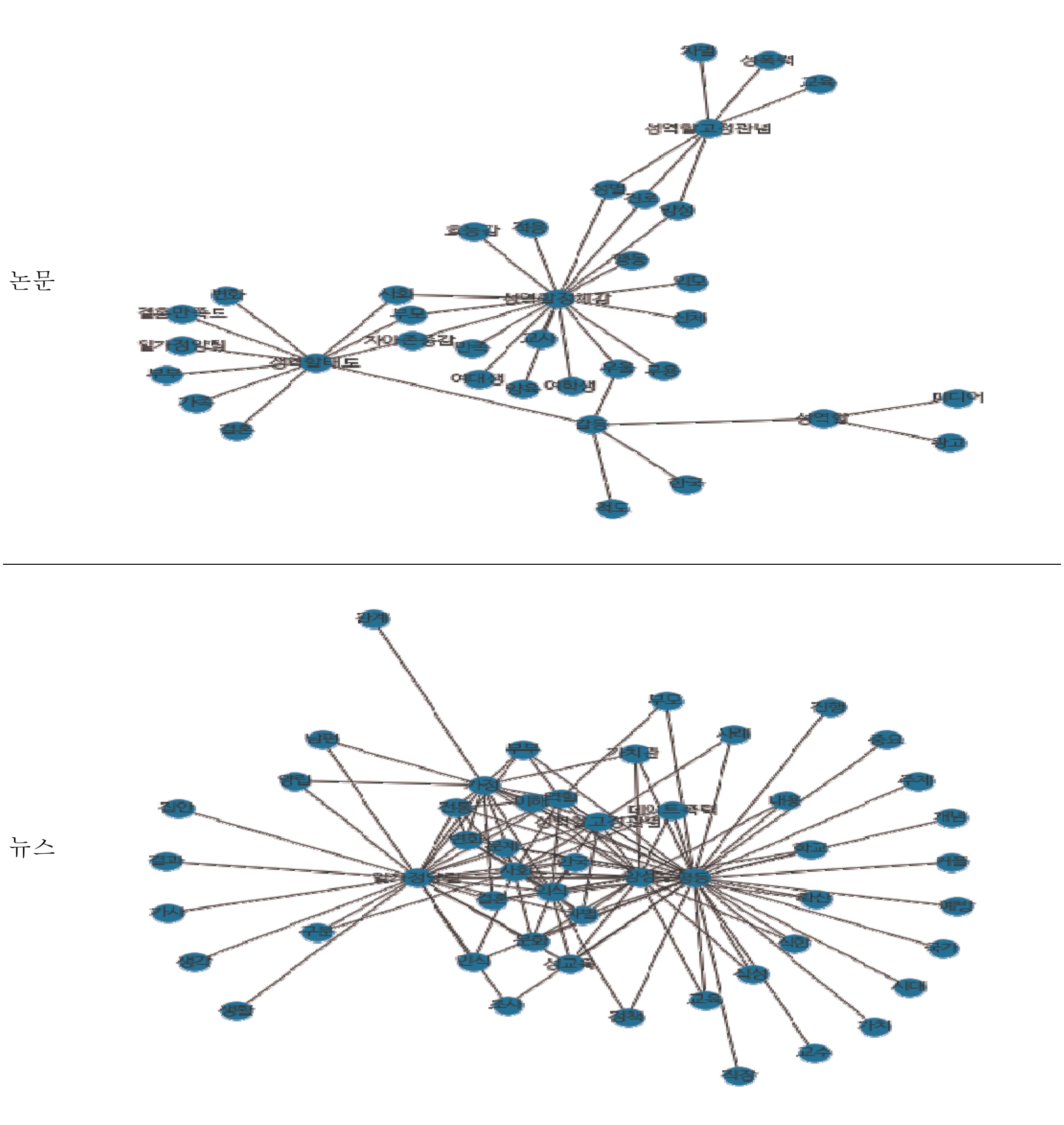
성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광고 키워드가 연결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새롭게 등장한 일 가정 양립의 노드가 성역할태도 노드를 통해 갈등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며 갈등 노드는 성역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심 키워드인 성역할태도, 갈등, 성역할의 상호 간 연결된 형태 및 중심 키워드에 포함된 노드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갈등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미디어를 통해 불균형을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단순히 여성의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기본발전법 정책적 전략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체계와도 갈등을 야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2004년~2014년) 주제어 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논문	1	성역할정체감	0.515	성역할정체감	0.55	성역할정체감	0.761
	2	성역할태도	0.303	사회	0.44	성역할태도	0.355
	3	성역할고정관념	0.181	부모	0.44	진로	0.187
	4	진로	0.151	자아존중감	0.44	성역할고정관념	0.182
	5	갈등	0.121	진로	0.417	갈등	0.132
	6	양성	0.060	우울	0.417	우울	0.113
	7	성별	0.060	양성	0.392	사회	0.088
	8	사회	0.060	성별	0.392	부모	0.088
	9	부모	0.060	성역할태도	0.392	자아존중감	0.088
	10	효능감	0.060	효능감	0.388	양성	0.061
뉴스	1	평등	0.82	평등	0.847	평등	0.608
	2	일가정양립	0.52	일가정양립	0.675	일가정양립	0.276
	3	양성	0.4	양성	0.625	가정	0.081
	4	가정	0.32	가정	0.595	양성	0.078
	5	사회	0.32	사회	0.595	사회	0.030
	6	의식	0.28	의식	0.581	의식	0.016
	7	역할	0.22	역할	0.561	성역할고정관념	0.01
	8	성역할고정관념	0.2	성역할고정관념	0.555	역할	0.009
	9	변화	0.14	변화	0.537	변화	0.001
	10	차별	0.12	전통	0.531	데이트폭력	0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등, 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의식, 역할, 한국, 문제, 문화, 변화, 성역할고정관념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보였다. 평등을 중심으로 직장, 학교, 국가, 시대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교육, 부모, 가치관, 정책, 양성 등의 키워드와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편, 집안, 가사, 생활, 생각, 양립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결혼, 문화, 가정, 사회, 양성 등의 키워드와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 네트워크는 <그림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인식, 갈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 자녀 데이트폭력 노드들이 있었고 일 가정 양립, 부부, 관계, 만족 노드들은 갈등과 인식 중요 키워드와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우울, 경험 키워드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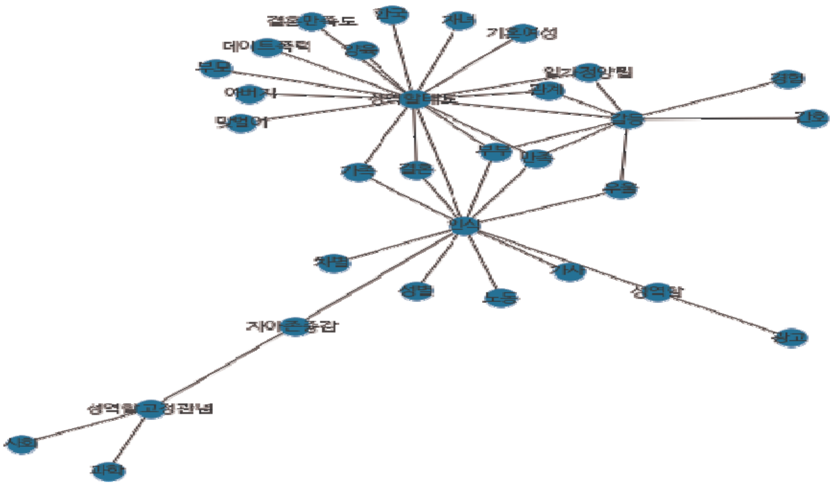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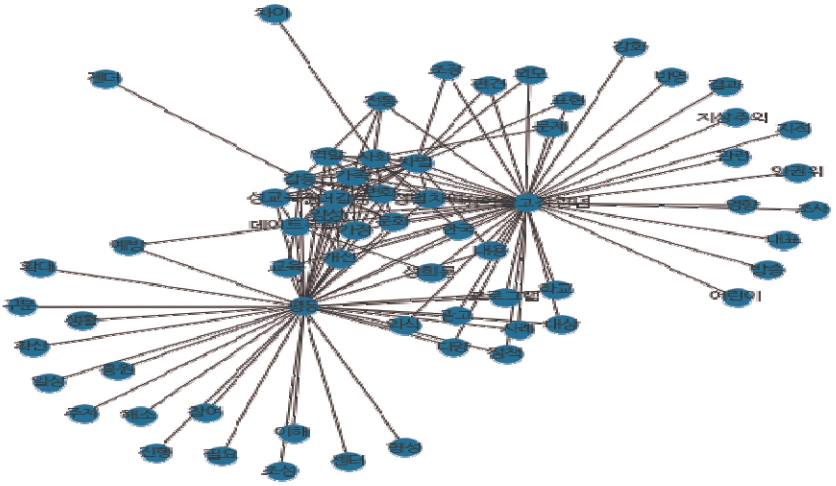


<그림 4.3>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2004년~2014년) 네트워크와 중심성 그래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차별, 성별, 노동, 가사, 성역할, 자아존중감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성역할 노드는 광고와 연결되어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성역할고정관념과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그림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고정관념, 평등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차별, 갈등, 젠더갈등, 데이트폭력, 가족, 역할 등과 복잡한 연결고리를 보였다. 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참여, 조성, 확대, 형성, 이해, 필요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정책, 대상, 예방 등의 키워드와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성역할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권위, 조사, 지상주의, 방송, 영향, 결과 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으며 편견, 내용, 조장, 문제, 한국, 사회 등의 키워드와 상호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표 4.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2015년~2021년) 주제어 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주제어	중심성
논문	1	성역할태도	0.653	성역할태도	0.650	성역할태도	0.687
	2	인식	0.346	인식	0.553	인식	0.430
	3	갈등	0.307	부부	0.481	자아존중감	0.212
	4	부부	0.115	만족	0.481	갈등	0.184
	5	만족	0.115	갈등	0.472	성역할고정관념	0.150
	6	성역할고정관념	0.115	결혼	0.456	부부	0.016
	7	결혼	0.076	가족	0.456	만족	0.016
	8	관계	0.076	관계	0.426	우울	0.016
	9	일가정양립	0.076	일가정양립	0.426	결혼	0
	10	자아존중감	0.076	우울	0.406	관계	0
뉴스	1	성역할고정관념	0.714	성역할고정관념	0.777	성역할고정관념	0.513
	2	평등	0.666	평등	0.750	평등	0.498
	3	사회	0.269	사회	0.577	사회	0.048
	4	차별	0.253	차별	0.572	갈등	0.036
	5	갈등	0.253	갈등	0.572	차별	0.034
	6	젠더갈등	0.222	젠더갈등	0.562	데이트폭력	0.016
	7	데이트폭력	0.190	데이트폭력	0.552	가족	0.004
	8	가족	0.190	가족	0.552	젠더갈등	0.003
	9	역할	0.142	역할	0.538	역할	0.002
	10	양성	0.126	양성	0.533	양성	0

논문	
뉴스	

<그림 4.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2015년~2021년) 네트워크와 중심성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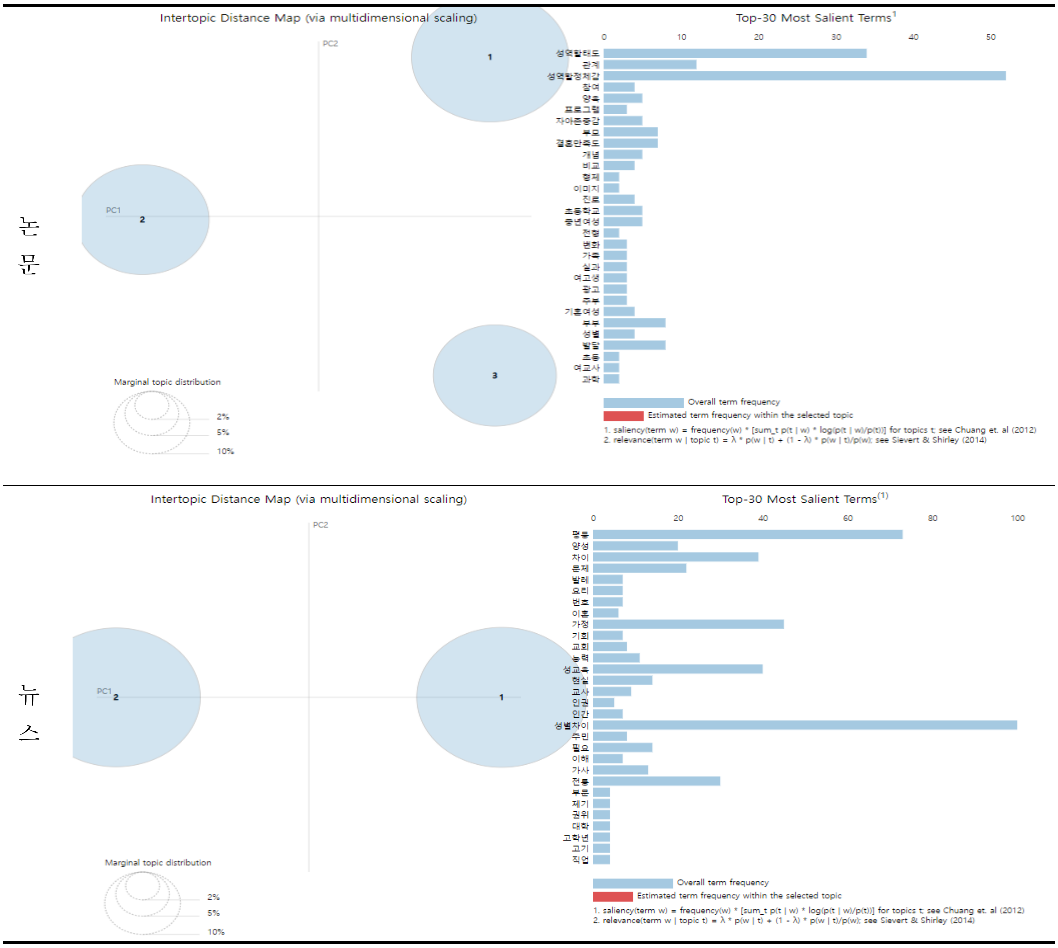
4.4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정책 시행 시기별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PyLDAvi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고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은 확률이 큰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토픽별로 할당된 주요 키워드는 같은 출현확률을 보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10개~15개를 제시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논문 및 뉴스에서 성역할에 관한 의미들과 잠재적 토픽을 도출하였다. 모자보건법 시행시기 토픽 및 주요 단어는 <표 4.10>과 같다. 논문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정체감(토픽 2), 성역

할고정관념(토픽3)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뉴스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평등(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 2)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표 4.10> 모자보건법 시행시기(1990년~2004년)의 토픽 및 주요 단어

년도	토픽(topic)	주요단어(keyword)
논문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사회, 결혼만족도, 관계, 부부, 갈등, 발달, 한국, 개념, 취업, 교육, 진로결정
	2 성역할정체감	성역할정체감, 교육, 참여, 한국, 프로그램, 자녀, 인식, 스포츠, 사회, 전형
	3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양육, 자아존중감, 부모, 비교, 초등학교, 중년여성, 성역할특성, 형제, 이미지, 변화
뉴스	1 성평등	평등, 사회, 성별차이, 가정, 차이, 성교육, 역할, 전통, 양성, 의식, 변화, 편견, 인식, 학교, 관계
	2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문제, 의식, 가정, 변화, 현실, 한국, 부부, 구분, 차이,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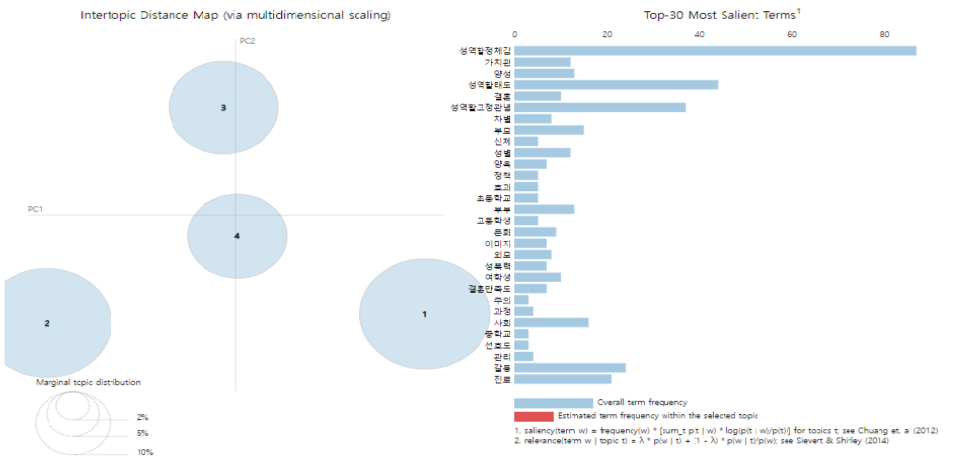
<그림 4.5> 모자보건법 시행시기(1990년~2004년) 토픽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 토픽 및 주요 단어는 <표 4.11>과 같다. 논문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 2), 양성인식(토픽3), 일가정양립(토픽4)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뉴스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평등(토픽1), 일 가정 양립(토픽 2), 성역할고정관념(토픽3)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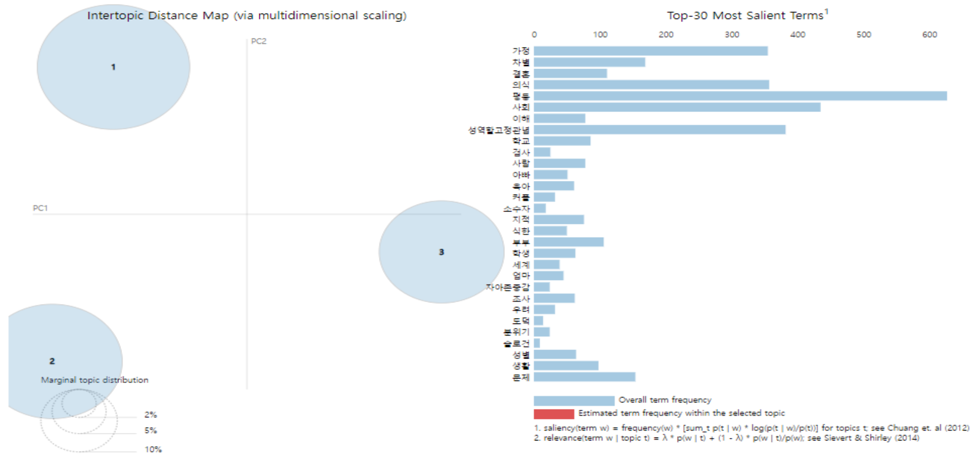
<표 4.1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2004년~2014년)의 토픽 및 주요 단어

년도	토픽(topic)	주요단어(keyword)
논문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가치관, 갈등, 인식, 결혼, 부부, 문화, 우울, 성별, 결혼만족도, 성폭력
	2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사회, 진로, 여학생, 이미지, 교육, 여대생, 초등학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갈등, 성격, 효능감
	3 양성인식	양성, 갈등, 정책, 리더, 만족, 관리, 광고, 효과, 고등학생, 부모, 양육, 교사, 가족
	4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의식, 가정, 성별, 차별, 주의, 양육, 부모, 선호도, 과정, 한국, 광고
뉴스	1 성평등	평등, 양성, 성역할고정관념, 가정, 사회, 변화, 역할, 전통, 성교육, 부부, 한국, 인식, 차별, 문화
	2 일가정양립	일가정양립, 사회, 평등, 역할, 양성, 차별, 의식, 전통, 가정, 문제, 지적, 인식, 관계
	3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사회, 가정, 결혼, 전통, 역할, 변화, 문제, 학교, 의식, 이해, 생활, 데이트폭력

논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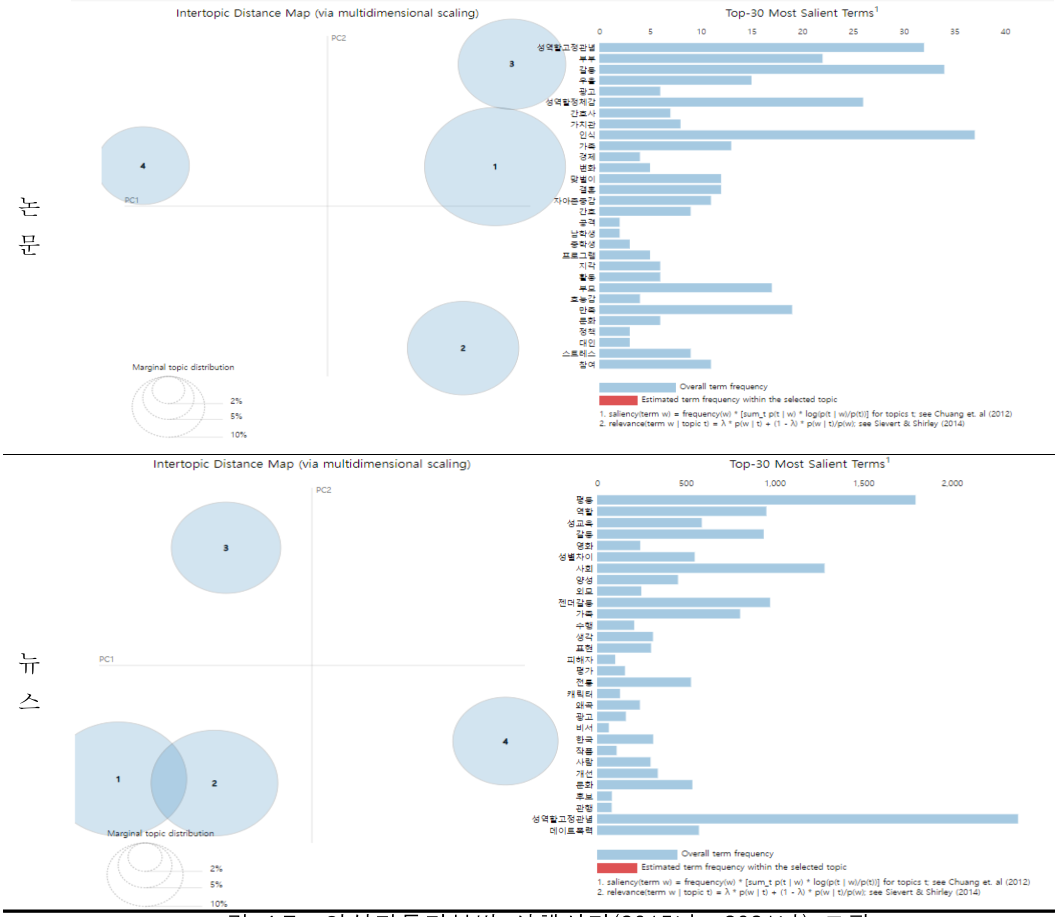


<그림 4.6>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2004년~2014년) 토픽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 토픽 및 주요 단어는 <표 4.12>와 같다. 논문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2), 성역할인식(토픽3), 성역할갈등(토픽4)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뉴스 토픽별로 살펴보면 <그림 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성평등(토픽1), 젠더갈등(토픽 2), 성별차이(토픽3), 데이트폭력(토픽4)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표 4.1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2015년~2021년)의 토픽 및 주요 단어

년도	토픽(topic)	주요단어(keyword)
논문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인식, 만족, 갈등, 맞벌이, 경험, 양육, 관계, 부부, 사회, 참여, 가족
	2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 일가정양립, 부부, 갈등, 만족, 양육, 인식, 경험, 지각, 스트레스, 광고
	3 성역할인식	인식, 갈등, 가족, 부모, 경제, 변화, 활동, 자녀, 참여, 사회, 우울, 가치관
	4 성역할갈등	갈등, 우울, 결혼, 가치관, 자아존중감, 교육, 공격, 남학생, 중학생, 효능감, 프로그램
뉴스	1 양성평등	평등, 사회, 성교육, 차별, 양성, 문화, 가족, 젠더갈등, 갈등, 개선, 정책, 노동, 구분, 데이트폭력, 가정
	2 젠더갈등	젠더갈등, 사회, 차별, 평등, 역할, 변화, 문제, 전통, 성별차이, 데이트폭력, 가정
	3 성별차이	성별차이, 역할, 차별, 표현, 젠더갈등, 갈등, 외모, 성교육, 사회, 편견, 평등, 평가
	4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생각, 역할, 사람, 한국, 왜곡, 수행, 차별, 성희롱, 내용, 강요, 영화



<그림 4.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2015년~2021년) 토픽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역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하고 있는 성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 및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책 시행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 및 여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분석 결과 성역할과 관련된 논문의 주요 키워드들은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등이었고 뉴스의 주요 키워드들은 ‘성별차이’, ‘사회’, ‘평등’, ‘성역할고정관념’, ‘전통’ 등이었다. 정책 시행시기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사회’, ‘관계’, ‘교육’, 한국’, ‘아내 구타’, ‘성별 차이’, ‘사회’, ‘평등’ 등 주요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도 영향과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성역할에 있어 사회적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양성평등’, ‘가치관’, ‘갈등’, ‘우울’, ‘일 가정 양립’, ‘가정’, 등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 제정과 추진 및 시행과 맞물려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 여성의 발전을 통해 성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의 ‘일 가정 양립’과 ‘관계’, ‘경험’, ‘가족’, ‘결혼’, 갈등’, ‘젠더’, ‘데이트폭력’, 등 주요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정책과 추진의 흐름 안에서 성역할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며 정책에 따라 사회 체계적인 기존의 가치들과 변화하는 개인이 대립 및 마찰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의미연결망분석 결과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논문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성역할, 성역할정체감,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취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성별차이, 평등, 사회, 성교육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편견, 한국, 역할, 차이, 가정, 의식들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역할태도가 성별에 따라 분명한 위계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차별과 성불평등은 주로 여성에게 향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논문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성역할고정관념, 성역할태도, 성역할정체감, 갈등, 성역할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및 성역할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평등, 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의식, 역할, 한국, 문제, 문화, 변화, 성역할고정관념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보였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새롭게 등장한 일 가정 양립의 노드가 성역할태도 노드를 통해 갈등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성의 발전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기본발전법의 정책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일 가정 양립 정책이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체계와 갈등 및 불균형을 초래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의 논문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성역할태도, 성역할고정관념, 인식, 갈등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뉴스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는 성역할고정관념, 평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차별, 갈등, 젠더갈등, 데이트폭력, 가족, 역할 등과 복잡한 연결고리를 보였다. 의미연결망분석 결과를 통해 성역할의 이슈는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함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은 자리매김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성역할은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한국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착되어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듯 ‘성역할고정관념’, ‘성별차이’, ‘평등’, ‘갈등’, ‘성역할태도’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부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은 가사노동에서 더 강한 경향성을 보였던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이윤경, 2021). 또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뉴스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성역할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논문에서는 자아존중감, 인식, 관계 등의 개념적인 설명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셋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모자보건법 시행시기의 논문 토픽은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정체감(토픽 2), 성역할고정관념(토픽3)이었고, 뉴스 토픽은 성평등(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 2)이었다. 토픽을 통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 한국은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남성의 권력과 위계가 전제하고 있었고 여성에게 전담되었던 사회적 관념(가족돌봄, 자녀 양육)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의 논문 토픽은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 2), 양성인식(토픽3), 일가정양립(토픽4)이었고 뉴스 토픽은 성평등(토픽1), 일 가정 양립(토픽 2), 성역할고정관념(토픽3)이었다. 토픽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후퇴적인 횡보를 보임에 따라 역차별의 논란이 야기되었고 젠더갈등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의 논문 토픽은 성역할태도(토픽1), 성역할고정관념(토픽2), 성역할인식(토픽3), 성역할갈등(토픽4)이었고 뉴스 토픽은 양성평등(토픽1), 젠더갈등(토픽 2), 성별차이(토픽3), 데이트폭력(토픽4)이었다. 토픽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도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 간, 성별 간, 대립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하면 토픽모델링을 통해 한국의 세대별, 성별 간에 생긴 괴리가 불평등을 다시 재생산하는 순환적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시행시기와 맞물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고 이슈화되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성역할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스럽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역할과 관련하여 억압과 삶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은 역차별 경험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평등을 이루고자 했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성역할에서의 불평등과 젠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논문과 뉴스는 사회를 반영하는 시각과 방식에서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학술적이고 심리적인 용어들은 이미 모자보건법 시기부터 논문에서는 높은 순위로 매개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스에서는 10위권 안팎에서 존재하다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가 되어서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1위로 올라왔다. 이는 사회 현상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을 뉴스를 통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나가는 형태로 보인다. 반면, 젠더갈등, 데이트폭력과 같은 용어들은 뉴스에서는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될 만큼 급격히 단어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논문에서는 약간의 빈도 상승이 있을 뿐 다른 개념들을 연결 짓거나 매개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이는 논문의 경우 원인 분석이나 기존 개념들에 새로운 현상을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시대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찾아 이해하는 것에 유용하고, 뉴스의 경우 새로운 현상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주의를 집중시켜 여론을 생성하거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성역할태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용어는 시대와 상관없이 논문에서는 계속 상위권의 빈도나 중심성을 보이지만 뉴스의 경우 평등, 성별차이, 가정, 차별 등으로 다양한 단어가 소개되는 것이 전자의 예시라면, 일가정양립과 같은 주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에 뉴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논문에서는 순위권에 보이지 않다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에 10위권 안에 소개되고 연구 수도 증가하는 것이 후자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 및 여론 분석과 관련된 키워드는 정책 시기에 따라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 가치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시행시기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구분되었다.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과 가사와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 간의 성역할의 격차가 존재했으며 위계적 권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키워드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시기 성역할에 있어 사회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성평등과 전통적인 성역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정책적 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통해 가족 내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성역할의 구분 없이 경제활동,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남성, 여성 모두가 참여하는 흐름으로 전환기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성역할 이슈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각 개인이 경험하는 성역할은 아직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성역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잔존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위계적 권력으로 억압되고 있으며 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여성발전법을 토대로 시행되던 여성에게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고 교육 및 미디어를 통한 문화 확산으로 성차별, 성평등 패용, 성역할과 관련된 이슈는 빠른 속도로 대중

에게 전달되는 반면, 이것이 실제로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과 관련된 연구 및 여론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이를 명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했으며 여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대표적이라 여겨지는 '네이버 뉴스'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성역할과 관련된 여론을 탐색하기 위해 대중의 생각과 인식을 반영된 다양한 자료(SNS, 소셜 미디어, 블로그, 댓글 등)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며 특정 사건은 여론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시기별로 살펴봄에 따라 각 년도 별로 정책적 쟁점과 사회 현상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년도 별로 관련 키워드와 그 변화를 파악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확인적인 정제작업을 거쳤으나 연구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의 대중화 및 일시적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는 주제(issue public)의 경우 뉴스의 확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뷰징(news abusing)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현재 성 불평등과 성차별이 사회 전반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편적인 젠더 갈등을 넘어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피하고 공정과 공평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여성은 성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좀 더 정교하고 근거에 기초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9일 접수, 2023년 5월 1일 수정, 2023년 6월 7일 채택)

참고문헌

김은숙, 조병은 (2010). 중학생의 양성 평등 의식 고양과 집안일 참여를 돕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2), 77-94.

명재진 (202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교회와 법>, 8(1), 104-140.

변명숙 (2010). 부모의 성역할 유형, 양육방식과 아동의 남성성, 여성성 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3, 43-62.

손영숙 (1994). 유아의 성역할 개념형성과 교육. <지역사회>, 1994(2), 70-78.

안선영 (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연구-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양명숙 (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여성가족부 (2021). <양성평등실태조사>, 서울.

우은복 (2002).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8(1), 83-106.

이선미, 김경신 (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태도:모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49-64.

이윤경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1(1), 16-31.

장영애, 김용미 (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전창욱, 최태균, 조중현, 신성진(2020). <텐서플로2와 머신러닝으로 시작하는 자연어처리>. 파주.

이기창(2021). <한국어 임베딩>. 서울.

황동진, 김사현 (2020). 한국인의 성역할 태도 양가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2(2), 77-105.

통계청 (2005). <가족실태조사 : 성역할에 관한 부부의 태도 일치도>. 서울.

Chaney, A., & Blei, D. (2012). Visualizing topic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6(1), 419-422.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Analysis of Trends Research on Gender-Role: Using Text Mining Analysis

Yun-Yong Eom[4)] . Gyoungin Kim[5)] . Wonyoung Song[6)]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public opinion through gender role-related studies and news, and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impact of gender role based on policy intervention prism. We selected 789 articles on gender-role that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21 in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Riss), and 8,049 articles including "gender roles" were collected from Naver News.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keyword analysis,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among text mining analysis methods using Google Colab.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role identity,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stereotyp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patibility were identified as key keywords of the study, and concepts, society, role, discrimination, and equality were key keywords of public opinion. Second,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it was possible to check major issues of the times by period. Finally,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ain concepts related to gender roles were combined with major policies to reflect social phenomena.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for subsequent research were proposed.

Key words: gender-Role, Analysis of Trends Research, news articles, Topic model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4)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Konyang Univ., 121 Daehangro, Nonsan, Chungnam, Korea.
Email: eyy83@hanmail.net

5) Second Author, Instructor, Gongju National Univ., 56 Daehangro, Gongjusi, Korea. Email: kgiyms@naver.com

6)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nyang Univ., 121 Daehangro, Nonsan, Chungnam, Korea.
E-mail: song@konyang.ac.kr